



에콜로지카

앙드레 고르스 지음

**붕괴직전 자본주의의 대안**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인간은 전멸을 피할 수 없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정치 생태학의 연구자 앙드레 고르스가 붕괴 직전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펴낸 ‘에콜로지카’는 배급주의 사회에 만연한 거품, 세분화된 노동의 끔찍함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저자는 재생 불가능한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생태적이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혁명을 지향한다. 기존의 경제와 삶의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한다. 말 그대로 ‘에콜로지카’는 정치생태주의로, 인간적이고 생태적인 삶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토대에 초점을 둔다.

즉 그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소비자 또는 노동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관점에서 진정한 삶의 주제로 살아야 함을 역설한다. <갈라파고스·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관계의 교육학,

비교초키

진보교육연구소 비교초키교육학실천연구모임 지음

**경쟁 만능의 교육 극복법**

근래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교육학은 아마 비교초키일 것이다. 핀란드 교육, 배움의 공동체, 혁신학교 운동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서적들이 발간되고 있다. 비교초키는 러시아 혁명에 활동했던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 ‘문화역사적 이론’이라는 세계적인 교육학의 원조가 되는 학자다.

한국 교육의 새 지평을 추구하는 교육주체 비교초키교육학실천연구모임이 ‘관계의 교육학, 비교초키’를 발간했다. 현장 교사들이 공부와 토론을 통해 완성한 결과물답게 주요 핵심 내용과 의미가 상세히 수록돼 있다. 비교초키 교육학은 ‘인간 발달’ 자체에 목적을 두고 논의를 집중하는데 특징이 있다. 경쟁 만능의 비인간적 교육 현실이 심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발달과 협력’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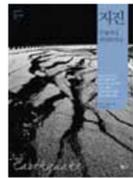
<살림터·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무자비한 자연 폭력...신의 분노인가 지구의 경고인가**

**지진-두렵거나 외면하거나**

앤드루 로빈슨 지음



지진의 역사를 바탕으로 보면, 세계 전역, 호주를 제외한 모든 대륙의 60개 이상의 대도시에서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베이징, 카이로, 콜카타, 델리, 이스탄불, 자카르타, 리마, 로스앤젤레스, 멕시코시티,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서울, 상하이, 싱가포르, 테헤란 그리고 당연히 도쿄와 요코하마 같은 거대도시들이 포함된다. (본문 중에서)

신의 분노인가? 한계에 다다른 지구의 경고인가?

지난달 25일 내팔을 강타한 지진은 한마디로 대참극이었다. 최소 7000명이 사망하고 1만4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8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 20만 채가 완전히 붕괴됐다.

아마도 지상에 지옥이 존재한다면 참

혹한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들 수도 있겠다. ‘자연의 폭력’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다. 과학기술도 무용지물이다. 과연 발을 딛고 선 이곳은 안전한가?

영국의 왕립아시아학회 회원이자 현직 기자인 앤드루 로빈슨이 쓴 ‘지진’은 지진의 기록, 단층의 수수께끼 등 지진의 총체적인 면을 분석한다. 한마디로 지진의 참모습 그리고 이에 맞서왔던 인류의 노력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바다의 신)이 지진을 일으킨다고 돼 있다.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바닥에 꽂아 지진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연의 현상으로 설명했다. 탈레스는 지구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물의 움직임으로 지진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아낙시메네스는 지구 내부에서 떨어진 바위가 다른 바위와 충돌한 때문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 내부의 돌골에서 생긴 ‘특정한 불’ 때문에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일부 힌두교도들은 코끼리와 연관 짓는다. 여덟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들이 지쳐 고개를 숙일 때 지구가 흔들린다고 믿었다.

일본의 지진과 관련된 전설에는 메기가 나온다. 평소에는 신이 메기의 머리를 커다란 돌로 눌러 놓는데, 신이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메기가 몸을 꿈틀거리려는 것이다.



일본의 지진과 관련된 전설에는 메기가 나온다. 에도(도쿄) 주민들이 메기를 공격하는 모습을 담은 목판화(1855년). <반니 제공>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생존자들은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 일종의 퇴행적 투사행위다. 동물이든 악마든 무능한 정부든 인간이든(외국인이나 약소인종) 가리지 않는다. 중세 유럽에서는 지진의 원인을 신의 분노에서 찾았다. 1775년 리스본 대지진 후에 열린 종교재판에서는 생존자 몇 명을 이단으로 몰아 화형을 시켰다.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때는 조선인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조선인이 살인 방화를 하고 있다’ ‘조선인

이 우물에 독약을 풀어 넣었다’는 유언 비어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지진의 주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세기 이후 ‘판구조론’은 지진 발생을 거시적인 면에서 설명하는 주 이론이었다. 지질 단층의 구조적 이동이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무엇이 움직이는지는 20세기에 분명해졌지만, ‘왜’와 ‘언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지진과 무관한 곳은 없다

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나에게 닥칠 수도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예측할 수 있다면 피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대지진이 어디서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전히 능력 밖이다.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 책의 부제처럼 ‘두렵거나, 외면하거나.’ <반니·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조선 성종·연산군·중종 75년의 피바람**



사회와 반정의 시대

김범 지음

정치에는 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긴장과 갈등이 김항관계를 형성한다. 조선의 정치, 그 가운데 조선 왕조가 탄생한 뒤 첫 세기(100년)가 지난 즈음에 그 같은 역학관계는 극에 달했다. 성종·연산군·중종의 3대 75년은 흥미롭고 중요한 사건이 전개된 기간이었다.

외형적으로는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등 주요 제도가 정비된 시기이기도 하지

만 내부적으로는 조선 최초의 사회, 반정 등 정치적 갈등과 변화가 일어난 격동의 시대였다. 제도가 완비되었지만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김범 박사가 펴낸 ‘사회와 반정의 시대’는 성종·연산군·중종대에 전개된 정치적 역정과 의미를 들여다본다. 특히 저자는 국왕, 대신, 삼사(三司)의 관계를 토대로 중앙정치를 움직이는 체제에 초점을 맞춘다.

예종이 재위 14개월 만에 갑자기 승하하자 성종은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그로 인해 성종은 성년이 될 때까지 수렴정정과 훈구대신에 의한 원상제라는 변형된 왕정을 경험해야 했다. 왕권 강화

를 모색하던 성종은 훈구대신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대간(사헌부, 사간원)을 적극 후원했고 홍문관을 언관화함으로써 언론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유도했다.

성종의 뒤를 이어 국왕에 오른 연산군은 삼사의 지나친 언론활동을 부담스러워했다. 특별한 해결책을 강구했고 그로 인해 무오사화가 발생했다. 무오사화 이후 강력해진 왕권을 옹호한 연산군은 결국 최초의 반정과 폐위의 불운을 피할 수 없었다.

추대된 국왕 중종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당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 자신의 과단성 부족과 인사 정책의 실패가 주 요인이었다. <역사의 아침·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위로**



선생님, 요즘 어떠하십니까

이오덕·권정생 지음

“저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보리밥 먹고, 고무신 신으면 느긋히 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가난한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권정생, 1973. 3. 14)

“선생님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내온 것이 죄스럽습니다. 우편환으로 7천 원 부처 드립니다. 제가 직접 가지 못해 안 됐습니다.” (이오덕,

1974. 2. 13)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위로. 이오덕과 권정생의 인생 편지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가 출간됐다.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하며 주고 받은 편지글에는 약값, 연탄값 걱정부터 읽고 있는 책 이야기, 흔자 잠 못 드는 밤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루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다.

이오덕과 권정생의 편지를 보면 사람이 사람이 진정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으며 서로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가 독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양철북·1만3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더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제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